

미주장신대, 한국직장선교대와 사역 협약 체결

韓·美 글로벌 선교 동반자적 관계 구축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와 한국 직장선교대학(대표 이재웅 목사 이하 한직선대)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직장 전문 선교사 양성 협력을 위한 사역 협약식을 가졌다.

양 대학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선교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장 선교사로 사역할 한직선대 학생들을 내년 봄 학기부터 미국 신학 부분 최고 인기기관인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미주장신대에서 선교학석사(MAICS)과정의 선교 이론과 실재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으로 현장 강의 역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내 여러 신학교육기관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된 사역협약식에는 한직선대 관계자와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장신대에서는 이상명 총장, 기획 및 대외협력처장 이명철 목사, 학생처장김루빈 목사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을 대신해 미주장신대와 사역 협약을 맺은 한직선대는 다문화, 다민족 복합도시인 캘리포니아 엘에이 근교에 세워진 미주장신대가 지닌 선교 지향적 신학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선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으로부터 양질의 선교 신학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미주 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사역 협약을 통해 본교와 한직선대의 선교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실무 담당할 미주장신대 이명철 기획처장과 김루빈 학생처장은 “한국직선대 학생들을 글로벌 직장선교사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날 협약식은 한국 측 대표와 미국 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한국 대전직장선교대학 지도목사 강지철 목사(생명샘교

회)의 사회로 미주장신대학교 학생 처장 김루빈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영동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렘31:20, 요3:1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수 장로(한국직선대 사역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협약식은 이재웅 목사의 협약식 목적과 취지 설명에 이어, 이상명 총장과 손영철 장로(한국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양측 대표자의 협약서 낭독 및 교환이 이어졌다.

축사는 미국에서는 유영기 목사(미주장신대 이사장, 해외한인장로회 전총회장)와 김창환 목사(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원장)가 전했으며, 한국에서는 손유타 목사(한국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남대문교회 담임)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가 맡았다. 이날 협약식은 김남식 목사(농촌진흥청 직선대 지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국교회, 10곳 중 7곳 이상 현장예배 재개

최근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7월 기준, 미국 교회의 약 70%는 현장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뱀티스트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전역 개신교 목회자 4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첫 주, 현장 예배를 드린 미국 교회는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5월 첫 주에 15%로 증가했고 6월 첫 주에는 과반수(55%)를 넘어 7월 둘째 주에 최고치(73%)를 기록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그러나 교회가 다시 모이고는 있지만 예배와 프로그램은 연초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라이프웨이 리서치 상무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가 늘고 있지만 항상 일직선은 아니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지역에서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만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간 현장 예배를 갖지 않았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21%였다. 팬데믹 당시에 드라이브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했던 교회는 5곳 중 1곳(21%)으로 집계됐다.

실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99%는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의 94%는 손세정제나 마스크, 장갑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했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표면을 닦거나(86%), 피어 앉기(76%) 등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목회자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한 경우는 3분의 1(35%)에 그쳤다. 실제로 교회 직원이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발

열 체크를 실시한 목회자는 21%였고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측정했다는 응답은 14%였다.

백코넬 이사는 이에 대해 “교회들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더 많은 예방 지침을 원하거나, 제한 지침을 줄이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조사에서 지난 3월, 예배에 참석한 교인 중 5%가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데 비해, 4월은 20%로 증가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목회자의 28%는 교회 성도 중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 20명 중 1

명(5%)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를 집도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미국 북동부(Northeast) 지역 목회자 가운데,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코로나 감염 진단을 받았거나(41%) 사망한 성도가 있다고(10%)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목회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업무시간 단축(74%)이나 실직(48%) 문제 등을 상담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의 81%는 성도들이 공동의 필요에 반응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60%는 성도들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도왔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베델교회,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세운다

2020년 베델장학생 54명 선발 후 장학금 수여

캘리포니아 엘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54명의 2020년 베델장학생을 선발해 각 1천 달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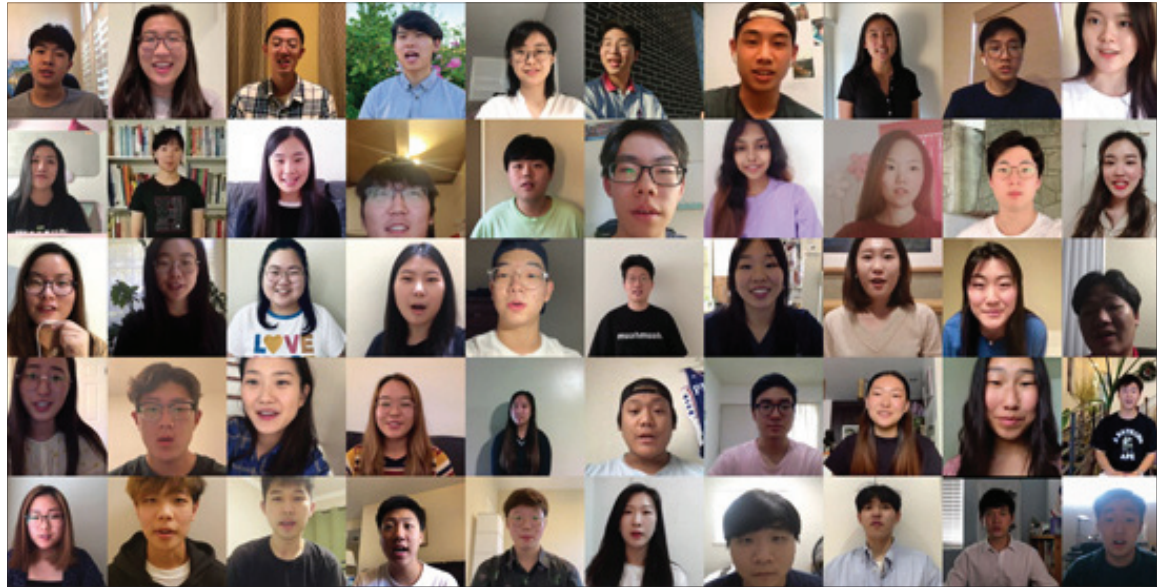
올해 베델장학생 선발에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주 동안 71명이 지원했으며, 본 교회 청년 22명, 지역사회 기독교인 자녀 16명, 선교사 자녀 13명, 목회자 자녀 3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교회는 장학금 수여식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방역 안전 수칙을 준수해 7월 26일 개최할 예정이

었으나, 주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수상자들이 감사 편지와 영상을 보내오는 것으로 대신했다.

베델교회는 “코로나 19로 부모세대도 겪지 않았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 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차세대 자녀들이 미래 크리스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영상 메시지로 감사의 뜻을 전해온 베델 장학금 수상자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차드에 한인들의 온정 필요

소망 소사이티 5만 달러 목표, 차드 긴급구호 캠페인 시작



아프리카 차드 생명살리기 기금모금 캠페인을 설명하는 유분자 이사장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차드에서 우물 파기와 학교 건립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소망 소사이티(이사장 유분자)가 최근 차드 정부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긴급지원을 결정한 소망소사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아프리카 차드는 2018년부터 시작된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며 “차드 아이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온정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소망소사이티에 따르면 아프리카 차드의 어린아이들은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쌀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소사이티는 2천 가구에 쌀을 한 포대씩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5만 달러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현지 쌀 1포대의 가격은 25달러이며, 3인 가족이 한 달을 견딜 수 있다.

유분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이들에게 우선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을 공급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모두 어렵지만, 십시일반의 온정으로 이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차드 돕기 기금 모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금 모금 동참을 원할 경우 전화 562-977-4580로 문의할 수 있다. 수표 송금처는 5836 Corporate Ave. Suit 110, Cypress, CA 90630, 페이팔(paypal) 송금은 somang@somangociety.org로 보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美 인디언 부족, 높은 빈곤율과 병원 시설 부족 등 코로나19에 취약”

남가주사랑의교회 나바호 인디언 부족에 마스크 30만 장 전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 원주민 부족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회는 지난 21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 자치정부에 마스크 30만 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다.

나바호 원주민은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유타주 일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주민 부족 중에서 인구 수로는 두 번째로 많고 가장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나바호족 병사들이 미군에 암호병·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했고, 6.25 한국전쟁에도 800여 명이 참전해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국내선교사 역원은 “나바호 원주민 인디언들은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며, 높은 빈곤율과 병원 시설 부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미국 나바호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전달한 마스크 박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익명을 요청한 성도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원주민 선교 사역을 펼치는 황성기 선교사를 통해 전달됐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나바호 자치정부 대통령 조나단 네크(Jonathan Nez) 부부와 부통령 미런 리저(Myron Lizer) 부부는 “복음화율이 저조한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이 전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자도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지난 15년간 매년 250명의 선교 멤버들이 현지 한인 선교사 및 원주민 목회자들과 협력해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의 나바호 원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L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미국 정규 학위 과정, 전 세계에서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어”

월드미션대학교 2020년 가을 학기 신(편)입생 모집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한인 기독교 종합대학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이하 WMU)가 2020년 가을 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학교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100% 온라인 트랙으로 WMU가 축적한 최상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주 한인 신학교로는 최초로 미국 신학 부분 최고 인가기관인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온라인 트랙의 모든 학과 역시 ATS와 ABHE로부터 인가를 받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모집학과는 학사 과정으로 기독교 사역학, 기독교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 과정으로 목회학(M.Div),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 리더십학 전공, 박사 과정으로 목회학 박사(D.Min), 교회음악학 박사(DCM) 프로그램이 있다. 또 유아교육(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 가정상담 사역, 비영리단체 사역자 프로그램을 수료 과정에 두고 있으며, 음악학, 간호학, 예배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는 캠퍼스 프로그램과 온라인 100% 프로그램으로 이수할 수 있다.

WMU 온라인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을 학생 주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직장이나 사역을 학업과 병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 정규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한국어로 이수할 수 있다.

입학처장 최윤정 교수는 “WMU는 우수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 내 24개 주를 비롯해 한국과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재학생들이 온라인 트랙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며 “캠퍼스 트랙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100% 온라인 트랙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지속해 나아가 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이어 “WMU는 한국의 강 중심과 미국의 토론 중심 교육 방식을 모두 채택하여 성인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 가을부터 사회복지학과 학부 과정이 신설되며, 예배학 석사과정에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타미 위커가 “예배찬양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WMU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등록금을 전년도 금액으로 동결했으며 유학생 장학금을 비롯해 목회자/선교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학비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모의 유엔(MUN) 프로그램, 차세대 지도자 키운다



지난 해 세리토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모의 유엔 MUN(Model United Nations)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미연합회 학생들

한미연합회(KAC)는 2020-2021년도 모의 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미래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 육성하는 KAC 모의 유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유엔 회원국 대표자 역할로 유엔 회의를 재현하며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게 된다.

KAC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MUN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분석 및 지도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컨퍼런스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고 소개했다.

KAC는 또 “이전에 MUN에 참여했던 12학년 학생들은 프린스턴, 스탠포드, MIT, 콜롬비아, 보스턴, 듀크, 하버드, UC 버클리, UCLA에 입학했고, 지난

해 학생들은 최우수 컨퍼런스에서 총 25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AC MUN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되며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2시간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MUN 프로그램 지원자격은 8학년에서 11학년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이며 12학년은 이전에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8월 31일(월)이며 인터뷰는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면 된다.

KAC 모의유엔프로그램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estherj@kacla.org 로 문의할 수 있다.

‘밀알사랑나누기’ 로 코로나19 함께 이긴다

남가주 밀알선교단, COVID-19 극복 위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 위로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지난 3월 말부터 총 10 차에 이상 진행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 LA와 OC 지역 장애인, 사랑의교실 학생 가정들에 도시락,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종희 목사는 “생업을 이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극도로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가뜰이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밀알 사역자들은 물품 전달과 함께 정겨운 안부 인사와 기도도 잊지 않는다.

이 목사는 “장애인들은 봉사자들의 방문 외에도 간절한 기도에 더욱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시길 수도 있고,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목사가 밀알 장애인 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있다.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남가주 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를 이용해 후원하실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에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의 562-229-0001



남가주밀알선교단이 LA와 OC 지역 장애인, 사랑의교실 학생 가정에 전달하는 식료품 및 생필품 가방

·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언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7

“저는 25년 목회를 마감하고 선교사의 길로 나갑니다”

저는 1996년 3월 해외 한인 장로 회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25년간 라스베이거스 영락교회 개척 목회(5년), 플러턴 조이플교회 개척 목회(2년), 엘에이 성광장로교회 청빙 목회(14년), 사우스베이 주비전교회 개척목회(4년) 등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목회 초기에 선교비전을 받아 미주 인디언 선교 후원, 멕시코 신학교와 교회 개척 선교 후원 사역 등을 20여 년간 계속하여 교회 선교팀을 구성하고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엘에이 홈리스 사역을 하는 울타리교회(나주옥 목사)의 운영이사로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 선교를 위한 실크 웨이브 선교회(김진영 선교사)의 운영이사로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이슬람권 선교의 전문인 선교단체인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회를 알게 되어 선교회의 이사과 지도목사로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12년간 매년 터키와 이슬람권 선교지를 찾아 복음을 직접 전하며 무슬림이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목회철학은 “하나님의 선교(Misio Dei)를 굳게 믿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지상대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열방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성도들을 인도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를 다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사명자로 세우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국과 멕시코 국경도시인 멕시코칼리(Mexicali)에 소재한 신학교는 1997년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 포항노회 파송 선교사인 임원석 선교사 부부가 개척하여 별관에 건축하고 세운 신학교로 2020년 현재 개교 22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 300여 명중 160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시무하고 있으며 그 외 선교사와 기관 목회자 60명을 합치면 220여 명의 사역자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미 교단과 노회에 많은 임원으로 배출되었고, 멕시코 장로교단의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학교는 배출된 졸업생 목회자들을 지원하여 65개의 현지 교회의 개척과 건축을 도왔으며, 셀탈족 언어로 된 찬송가와 성경을 1만 권 이상 보급하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현재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재학생 80명이 4년간의 신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5월 졸업식이 10월 개교 22주년 기념일로 연기되어 12명의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치아파스 등지에서 시험으로 선정된 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가족 그리고 교수진들을 포함 100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기숙하고 훈련받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은 현재 멕시코 교단 최대의 신학교로 자리매김하며 남미 신학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신학교의 비전은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원하여 멕시코 및 남미 선교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선교에 주력하여 장차 멕시코 신학교 출신들이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열방 선교사 배출의 비전을 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시려 하는 것을 믿고 힘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주의 선교적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역자들의 기도와 동역을 바랍니다.

이제 저는 25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교(임원석 선교사)의 청빙을 받아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청빙 결과는 지난 22년간 선교 개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감당하던 임원석 선교사의 건강 약화로 사임을 준비하면서 그 후임으로 제게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고, 가족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상의한 결과 가족의 동의와 교회의 후원회 결정을 힘입어 멕시코 선교지로서의 사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미

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6) 여유

믿는 자여! 여유를 가져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최근에 기독교 고전인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일곱 개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모독죄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주변 지역 교회들과 동역자인 폴리갑 감독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절절한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길을 가던 이그나티우스가 전하는 서신들을 읽으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7서신들에 그의 넓은 가슴과 그 가슴에 담긴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순교를 갈망하며 투박 투박 전진하는 그의 기개와 담대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지만 흔들림 없는 여유와 기개를 자랑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 다운 담대함입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담대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순교는 이어서 순교한 폴리갑과 콘스탄티노플 담임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토스를 포함한 당대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삶의 여유가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보여 주는 삶의 여유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감옥에서 수감자로 살면서 빌립보 교회에 위문편지를 보냅니다. 통상 위문편지는 감옥 밖의 사람들이 감옥의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기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고상한 위문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상한 위문

편지를 쓰는 여유의 원동력은 천국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이 땅의 삶 끝에서 만나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확신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고, 사형의 위협에 놓여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사형을 당해도 천국행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바울이 가졌던 여유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달픈 형편이나 어려운 여건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13개 서신에서 자신의 삶에 부여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도가 누리려 하는 삶의 여유를 생각하면 다윗이 생각합니다. 다윗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걸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훗날에 자신의 친아들인 암살범에게 쫓겨 다시 도망가는 처지가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달픈 도망 길에서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암살범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여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을 보면서 시므이가 나와 다윗 왕과 그의 신복들을 저주합니다. 아들을 피

하여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과 흙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시므이에 분노한 아버세는 시므이를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왕께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만류하며 다음과 같은 근사한 말을 남깁니다. “저를 그냥 두고 죽이지 마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저 사람이랴 오히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을 행하실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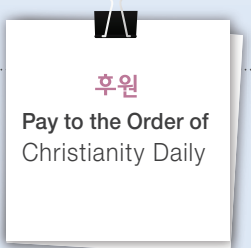
다윗의 대답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둘째, 암살범의 반역도 자신이 받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셋째,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good)’으로 갚아 주실 수도 있다는 신뢰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현실을 수용합니다. 다윗은 이 모욕과 수치 그리고 분노를 감싸는 믿음의 여유를 보입니다.

여유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 축구선수는 상대편 수비가 있어도 여유롭게 슈팅을 합니다. 자신의 연습과 실력을 믿는 음악가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여유롭게 연주를 합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사형 길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비록 감옥에 있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 여유가 필요합니다. 신앙인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2) 이반 로버츠와 웨일즈의 부흥운동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20세기 전 세계에 부흥운동의 문을 여는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불길은 유럽뿐 아니라 1905년에는 웨일즈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있던 인도와 호주와 아프리카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 현장을 다녀온 미국목사 존스톤의 도전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평양 대 부흥운동은 중국 만주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것처럼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세계적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웨일즈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싶다.

웨일즈는 과거 여러 차례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었지만 웨일즈 대 부흥 직전 웨일즈의 상황은 비참했다. 자유주의 신학, 다윈의 진화론, 성경의 고등비평이 신학교에 깊이 침투하자 성경에 대한 권위의 상실로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했다. 당시만큼 웨일즈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시대도 드물었다.

부흥을 위한 기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현재 웨일즈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성경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다” “강력한 성경의 임재만이 유일한 치유책이다”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 1903년에 웨일즈에서 케직 사경회가 열려 목회자들 사이에서 각성이 일어났다. 참가한 목사님들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2,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하여 6개월동안

매일 밤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합류했고 기도의 열기가 강하게 타올라 성령의 임재로 영적 자도자들과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다.

3, 1904년에 26세의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성령충만을 체험하고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시작한다. 그는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면서 몇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친구들과 부흥에 관해 나누었다. 1904년 봄에 비상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체험을 했고, 3-4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이런 기도체현이 계속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즈와 세계 여러 나라에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웨일즈 남서부에 있는 뉴캐슬 엔린에 소재한 예비 신학교로 들어간다. 그 근처에서 Seth Joshua 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부르짖다가 13년간 기도하며 사모하던 성령충만을 체험한다.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구세주에 대해 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찼다. 이때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 손을 거두시라고 간청해야겠다고 그는 고백한다. 로버츠는 이 경험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로버츠는 여러 차례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는 활활 타고 있는 지옥 불의 모습과 함께 지평선 너머로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 불을 향해 달려오는 환상을 보았다. 또 세계를 뻗어있는 팔과 그의 손에 100,000의 숫자가 기록된 종이를 보기도 했다. 로버츠는 10만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10만명을 구원하는 꿈을 친구들과 나누었다.

10월이 되면서 그는 고향의 모교회인 모라야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불타올랐다. 그는 신학교 교장에게 고향에 돌아가 1주일간 집회하고 돌아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고향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 회중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로버츠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의 4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우리의 삶에 거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성령께 우리 자신을 반드시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대부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소서”, “더욱 강하게 임하소서”이었고,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그의 집회의 특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부어주소서, 강하게 부어주소서, 더욱 강하게 부어주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그를 따라 다녔다. 약명 높은 죄인들, 술주정꾼들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고 원수들이 화해했다.

11월에는 이반 로버츠와 성령께 사로잡힌 몇몇 사역자들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의 요한 웨슬리로 불리었다.

가장 기억에 남을 일들이 남 웨일즈에 있는 탄광마을들에서 일어났다. 부흥의 물결이 탄광 지역에 몰아칠 때 지하 63m 떨어진 갱도에서 80명의 광부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아멘을 웨쳤다. 광부들 사이에 많은 기도회가 열렸고, 광부들의 노동이 질적으로 개

선되었다. 낭비벽이 줄어들었고, 술과 개으름과 도박이 줄어들었으며 말을 부릴때 욕설과 발길질이 없어졌다. 로버츠가 분명히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조직하고 지배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성령님께 순종했다. 부흥운동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1년 동안 10만명이 주님께로 인도 되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특징들과 영향

1, 찬양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며 거리에서 밤새 찬양을 부르기도 했다. 출퇴근 길이 찬양행렬이 되기도 했고 기차 안에서, 탄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2, 성령을 보내달라는 간구가 이반 로버츠 집회의 특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강하게 보내주소서,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집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라고 강조했다.

3, 놀라운 교회 성장, 도덕성의 향상, 사회 개혁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반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는데 한동안 웨일즈에서 죄인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도덕성이 향상 되었다. 술집과 도박장이 거의 텅텅 비어 문을 닫았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술을 못 마시고 나오거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되기도 했다. 극장들도 텅텅 비었고, 운동팀들이 해체 되었는데 선수들이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간증하러 다니기를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술을 안 마시니 가정불화가 치료되었고, 가정과 직장들이 찬양으로 넘쳐났다.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탄광들에 부흥이 임해 탄광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석탄을 실어날리는 나귀들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발로 차고 쌍욕으로 나귀를 부리던 광부들이 변해 나귀를 대하는 언어와 발길질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주정뱅이, 사기꾼,

도둑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니 감옥은 텅텅 비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졌지만 시민들은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월급주기를 기뻐했고, 빚들이 자진해서 갚아졌다.

4, 웨일즈의 부흥은 전 세계적 부흥을 촉발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흥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져갔고,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나가있던 인도, 호주, 아프리카에서 웨일즈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도와 호주와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아주사 거리, 한국의 평양, 그리고 중국의 만주의 부흥으로 연결해 일어났다.

부흥운동은 부흥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흥을 보내주소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 부터 강력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소서로 일어났다. 어느 때보다 더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이반 로버츠 같은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낙태는 인간의 권리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를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이오와에서 열린 ‘패밀리 리더십 서밋’(Family Leadership Summit)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낙태는 단순히 인권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생명과 결부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간의 권리가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세계 다른 지역과 (이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미 국무부 유튜브 영상 캡처

다른 톤(tone)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행정부는 역사상 다른 정부와 같이 태아의 권리를 방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편 139편 13절(“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

를 만드셨나이다”)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수 천여 명의 해외 장교들을 위한 새로운 종교 자유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무를 저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매일 그 부르심에 존중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의 소명에 비추어 저의 책임을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면서 “나의 입장을 잘 지키는 것은 진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의 신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美 대선후보 조 바이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더 가르쳐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 100일을 남겨놓고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대선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슬람 단체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학교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하며,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 무슬림 권리운동 시민단체 ‘엠게이지 액션’(Engage Action)이 주최한 원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슬림계 미국인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백만 무슬림 투표운동’이란 타이틀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무슬림 유권자의 표를 집결하고자 마련됐다.

바이든은 “학교에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한다”며 “이슬람은 위대한 고백 신앙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기초 신념들(beliefs)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말이다. 오는 11월에 (당신들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 약속을 취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공립고등학교 수업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슬람 단체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학교들이 이슬람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하며,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Youtube/US Hub

이슬람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경우 중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바이든의 발언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당선되는 첫날 즉시’ 특정 이슬람 국가들의 여행객들을 입국금지 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철회하

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vile)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막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의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무슬림계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 지역 사회나 미국 전체를 위해 소중하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대로 인정받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포비아(이슬람 공포증)를 지닌

사람들을 국방부와 국제개발처의 핵심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가 지닌 가치에 대한 모독이며, 전 세계 내에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과연 다른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나”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관해선 바이든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적했다.

이날 엠게이지 액션 측은 “미국 내 주요 접전지역 주마다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출직 고위직에 진출한 무슬림계 정치인들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지지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종교(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무엇보다(교회 관련) 명령하지 않고, 과격한 좌파 진영에 연락할 것”이라며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앵커의 주문에 “지금 그들이 교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ix Feet Apart)를 원한다면 교회조차 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혜 기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법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MLB 구원투수 홀로 BLM 퍼포먼스 거부 “무릎은 하나님께만”



인터뷰 중인 샘 쿤로드 선수. ©유튜브 영상 캡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겠다”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퍼포먼스에 반대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화제다.

최근 USA투데이(USA Today)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시즌 개막 경기에서 선수들과 매니저, 코치들이 성조기 앞에서 검은 천을 들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을 지지하는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만 예외였다.

그 주인공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구원투수인 샘 쿤로드(Sam Coonrod)다. 그는 이른바 BLM 운동을 지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릎을 꿇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쿤로드는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LM 운동에 관해 들은 바 몇 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쿤로드는 “경기 전 팀원들이나 코치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오후까지도 무릎을 꿇기로 한 결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베 카플러(Gabe Kapler) 매니저를 포함한 일부 자이언츠 선수들은 애국가가 진행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다저스 외야수 무키 베츠(Mookie Betts)만 유일하게 애국가가 시작되는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이와 관련해 카플러는 줌(Zoom)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 가지는 각자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수들이 서 있을지, 무릎을 꿇을지, 다른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샘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흑인 자유 운동을 이끄는 단체인 유명한 프레드릭스 더글라스(Fredrick Douglas) 캘리포니아 대표인 케빈 맥그레이(Kevin McGray)는 BLM에 대해 “나와 가족들도 흑인으로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TOO!) 여기서 ‘도’(too)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자매로서, 피부색으로 대화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각각 뛰어난게 아름다운 고유의 인격체로 대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LM은 조직적이고 반기독교적 단체이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흑인들은 BLM이 오히려 흑인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BLM은 흑인들을 가장 억누르고 세상을 억누르는 역사를 가진 막시즘, 사회·공산주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담고 탄생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흑인들의 아픈 과거를 이용할 뿐이지 정작 흑인들이 개인적으로 사회 속에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은 절대 없는 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동성애 때문에 이혼했다가 신앙으로 회복된 美 남성



‘성혁명 생존자들을 위한 루스 인스티튜트 서밋’에 출연한 패널들 ©루스 인스티튜트 제공

낙태반대운동 매체 운영 중인 메인워닝 작가

동성애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던 남성,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지닌 자녀 2명을 둔 엄마, 게이클럽으로 알려진 펠스 나이트 클럽 테러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최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진행된 ‘성혁명 생존자들을 위한 루스 인스티튜트 서밋’(Ruth Institute’s Summit for Survivors of the Sexual Revolution) 패널로 참석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되는 도전들에 관해 나눴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 보도했다.

낙태반대운동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를 운영 중인 메인워닝(Mainwaring) 작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낀 동성애 충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전했다. 그는 한때 워싱턴포스트(WP)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연재하려고 했으나, 동성애 합법화가 아닌 동성애자들의 시민결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선택했다. 이 같은 선택으로 그는 대부분의 동성애자 친구들을 잃게 되었고, 혐오 메일을 받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동성애적) 행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깨닫게 됐다. 그의 자녀들은

가톨릭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은 좋은 이웃이었다.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자녀들 앞에서 가족적인 사랑을 부정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메인워닝 작가는 곧 매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맨 끝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잘못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마침내 아내와 자녀들과 화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남이 ‘레미제라블’ 프로덕션의 주인공 역할을 맡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장발장 역할을 맡은 아들이 죽어가는 여성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녀의 팔을 돌봐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들을 통해 내가 내버려 두었던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했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다음날 그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이혼한 아내를 만났다.

메인워닝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남자는 서로를 완성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아내는 날 완성시켜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아내처럼 내게 행복과 완전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회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2인2세를 책임지며, 이만기장을 치료하여,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gen Edgen)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11:00 (오전 6:00토)
유초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리엔(소매점)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금)
종교개혁의 날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2부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개혁 주일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양아침예배 오전 10:00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토)
191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393-686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3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유치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요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웅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88개국 성서공회 폐쇄 위기



©Unsplash/MD Duran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여 개의 성서공회가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24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의 영향으로 성경 판매가 중단됐으며 지역 교회에서 벌이던 주요 기금 모금 활동이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요르단, 부르키나 파소, 이집트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서공회가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다.

성서공회는 또한 성경 번역 및 참여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이며 거리의 아이들, 시각장애인, 문맹과 같은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804년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를 포함한 기독교 운동가들은 성서 공회를 설립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150여개의 성서공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억 2천5백만 명에게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88개의 성서공회는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성서 공회는 폐쇄 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비아,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성서공회를 위해 5백만 파운드(약 76억) 규모의 첫번째 자금을 할당할 상태다.

영국 성서 공회 국제 선교국장 올드 모라바(Old Morava)는 "성서공회가 폐쇄된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성경이 배포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에 접근 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성서 공회는 2백년 이상 운영돼 왔다. 2차 세계 대전과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견뎌냈다. 전 세계의 일부 성서 공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쇄된다면 끔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중국 정부, 교회 폐쇄하고 사회주의 선전 기관들로 대거 전환



중국 그리스도인 연합회가 SNS에 공유한 비디오 영상. 교회 옥상에서 크레인으로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Three-Self Church)들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회주의 가치를 선전하는 문화센터로 대거 전환시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내 박해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푸닝 현 양자이읍의 '흐르는 시내 교회(Flowing Stream Church)'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강제 점거를 당해 마을의 문화 서비스센터로 전환됐다. 이 교회는 앞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부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적이 있다.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교회 건물은 현재 시진핑 주석의 강조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전하고 복음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차이나에이드는 밝혔다.

인근 지역의 또 다른 교회인 베이저우 장교회(Beizhouzhuang Church)도 문화 종합단지로 변경됐다. 차이나 에이드에 따르면 이 교회도 지난해 10월 교회의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의해 해체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박해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당국은 최근에도 빈곤층 기독교인들에게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신앙을 버리고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주석 등의 공산당 지도자의 초상화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최근 몇년 간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중국 공산당기를 걸도록 요구했으며 일부 교회 건물은 정치 활동을 위한 용도로 개조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어왔다.

미국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USA

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모든 종류의 단체들을 폐쇄하기 위한 보다 큰 박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오픈도어가 꼽은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23위에 꼽힌다.

한 기독교인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양부타운의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의 삼자교회를 300㎡ 규모의 노인시설로 개조하기 위해 십자가를 철거한 상태다.

올해 초 중국 우한성을 방문한 오픈도어 USA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는 "중국 정부가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대규모 감시와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커리는 "수천 개의 교회를 강제 폐쇄하고 건물에서 십자가를 철거하는 것은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흔히 쓰는 전술"이라며 "정부라는 신(神)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전체주의적 야심(totalitarian ambition)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종교적 활동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신론 국가로 분류되지만 국제 사회로부터 기독교뿐 아니라,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 신자 등 다른 종교 소수 집단들을 상대로 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제종교자유단체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국대사는 홍콩을 순방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신앙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조용기 목사 경미한 뇌출혈로 수술



지난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한 조용기 원로목사. 그러나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위급한 상황 아닌 것으로 전해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4)가 22일 경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에 따르면 조 목사는 이날 오전 뇌출혈 증세를 보여 구급차를 통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았다.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 16일 교회 집무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서 '예수님과 강도'(마 27:38-4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러나 당시 영상 속 조 목사는 오른 눈 부위에 이상이 있는 듯, 멍이 들고 부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진영 기자

법원, 이상원 교수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학교 종합관 전경. ©충신대

“교수 지위 임시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

충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낸 '해임요령지침가치분'을 24일 인정한 법원은 학교 측이 이 교수를 해임 처분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강의 중)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것을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거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2차 피해 유발에 대해)

또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한 채권자가 총학생회 회장에 2019년 12월경 몇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징계사유(학내 문란에 대해)

이율러 “제3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충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충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충신대 법인)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경우,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의 태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경우,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충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제 시노드 선교사역에 모인 자는 복수공평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빛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성경회 오후 8:00, 종교개혁,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을 주어진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개혁, 대학청년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4예배 : 오후 7시,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김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후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종교개혁 주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FAME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민족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대한민국의 전통에 대하여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염전이 별수 있나?” “와라지 주제에!” 달려가 아닌 “염전,” 구두가 아닌 “짚신”이라는 의미의 말은 한 때 미약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시키는 부정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보지 않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하늘과 땅 사이의 변화, 더 정확히 말하면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체험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역사상 최고로 세계에 공헌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기술, 군사의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 속에 꾸준히 도전적인 발전과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발전의 배후에는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택, 교육에 대한 유교적 열정,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경쟁,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의 열정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투자와 함께 우리 민족에게 독특한 빨리빨리 기질도 한 몫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의 발전을 견인한 문화적 코드입니다. 구로구청에서 여권을 갱신하고 나서 며칠 후의 예약일이 오기 전에 ‘와서 찾아가라’는 놀라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미리 문을 열고 컵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인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승강기에 탄 후 몇 초를 줄이려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단연 한국인입니다. 돈도 빨리 벌고, 집도 빨리 사고, 공부도 빨리 하고, 아파트도 빨리 짓고, 또 빨리 부수는 사람도 단연 한국인입니다. 덕분에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고, 선교도 빨리하고, 주의 사역도 빨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리워진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역기능을 교정하도록 새로운 도전을 던져줍니다.

2018년 7월 BBC 온라인에는 한국에 대한 여행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맷 크로포드 씨는 서울시 관악구의 “또바기 기사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지 정확히 2분 20초가 지나 테이블 위에 김치를 비롯한 기초 반찬이 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 후에 펄펄 끓는 빠다귀 해장국이 제공되었습니다. 크로포드씨는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텀도 없는 식당에서 이처럼 빨리 음식을 제공받는다는 것만 아니라 이러한 식당이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체험하는 색다른 느낌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그 속도에 있어서 놀랍도록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역동성의 기저에 “빨리빨리 문화”(ppalli-ppalli culture)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의 식당에 손님이 와서 테이블을 점유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영미권 신부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먼저 설명 없이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수단의 신속성, 고속열차와 택배는 그 속도에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낸 성숙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등을 전해주는 다윗의 시편은 왕궁에서 편할 때 쓴 노래가 아니라 광야에서 적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맨발로 도망칠 때, 가슴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고백이었기에 더 진실 되고 아름답습니다. 성어거스틴은 ‘고통이란 수를 놓는 천을 보는 것 같다. 뒷면에는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앞면을 보면 아름답고 조화 있으며 질서 있는 문양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그 때에는 영망진장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고통을 통해서도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숙입니다. 고통을 견뎌낸 최고 중의 최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의 값 사물을 대신 지불해주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영, 혼, 육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성숙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보다 더한 것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므로 가장 아름다운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이 아직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당에서 대면예배를 못 드린 지도 3달이 넘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어려움을 더해가면서 마음 한 켠으로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이 싹틀 즈음에 덜컥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당혹함과 육체의 아픔, 그리고 함께 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몇 주 간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깊은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고 감사와 찬양이 자신을 덮을 때 급속한 치료가 임하여 음성 반응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이 오히려 탁해진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후반전을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고통을 견뎌낸 성숙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감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그런데 가만 보니 다른 농장들은 배정받은 비료를 받아서 속속 떠나가는데, 나만 비료를 받지 못한 채 가져온 보리쌀을 축내고 있

었다. 나는 약에 받쳐서 친구를 찾아갔고, 친구는 3일만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면 요구한 비료를 전량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친구의 말에 이 친구가 이제 반동 교육까지 시키려 드네 싶어 더 화가 나면 서도 잘못하면 비료를 짚으로 밟겠구나 싶어 마지못해 공부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냥 공부하면 될 터인데 무슨 놈의 요구 조건이 그렇게도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밖에 출입하지 못한다.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한다. 내가 가져온 보리쌀로 학습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한다

들이 붙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일 이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농장에 배정된 비료를 맨 나중에 줄 것이고, 그것도 배정받은 전량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마음 같아선 비료고 나발이고 ‘잘 먹고 잘살아라’고 고향 한 번 지르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돌아가서 간부들에게 추궁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 망신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농장에서는 내가 한때 도시에서 간부로서 잘나가던 사람이었으니 농장에 배정된 비료쯤이야 발같이 전에 받아 오겠거니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후 지날 일도 큰

일이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심정으로 친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때부터 성질이 났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떠들어야 속이 시원한 나의 더러운 성질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듬

어 가기 시작하셨다. 3일 동안 나를 가르친 선생은 당시 열여섯의 풋내 나는 계집아이였다. 그랬으니 나는 ‘어린 것이 날 가르쳐?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뒤뜰린 심정으로 강의에 임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착각이었고 교만이었던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영광을 향한다

Righteous Outlaw
이름 없는 자의 영웅담

복음의 수선자들:
모디엔(세이우스도인), 주선(세이우스도인) 황재교수
이종(세이우스도인), 송정(세이우스도인) 김홍대, 권영(세이우스도인) 김홍대, 신영(세이우스도인) 김홍대, 유영(세이우스도인) 김홍대, 김인(세이우스도인) 김홍대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영의 책은 아예 인터넷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화성도들의 순교연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크로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죽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칼럼

맛있는 말씀 밥상



박진우 목사
켈러한인재일침례교회 담임

“97.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 103.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97-103)

오늘 말씀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꼭꼭 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7절에서 99절입니다. 말씀의 시편이라고 하는 119편에 다윗은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항상, 늘 읽고 또 읽는다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밥도 오래 씹으면 밥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밥 맛이 좋아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

하다보면 말씀에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맛에 말씀을 또 찾고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받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먼저 98절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속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수가 우리가 받은 과거의 상처일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스스로 나를 율아매는 죄짓감일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길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수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한 자들만이 가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다음 축복은 99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욱 더 명철해진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보다 더 명철해진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 학교의 교육을

통해, 친구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스승들보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더 명철해진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고 행복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인 겁니다.

두번째 영적인 법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삼켜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실컷 씹은 후 뱉어버린다면 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더라도 그것을 살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삼키는 것을 고상한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00절에서 101절입니다. 100절에 다윗은 그 말씀안에 있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101절에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속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6일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자신의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00절입니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합니다. 분명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얻게 되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성숙함보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지혜롭고 성숙하다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잘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101절입니다. 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못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여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

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의미는 함께 밥을 먹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때는 밥을 함께 먹으면서 모든 인생을 배웠습니다. 밥을 편식하면 편식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힘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 함께 화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의 여러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밥 먹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욱 더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밥을 먹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말씀밥상 앞에서 함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함께 말씀을 먹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슈
 주일제전
 2019년
 공미라고
 마그네틱 임플란트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상복구 보장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부산행> 속편, 영화 <반도> (上)

<킹덤>보다 못한 영화 <반도>: 좀비 신드롬, 지옥의 이미지화

◆**좀비와 미디어: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좀비문화의 확산**

영화 <부산행>(2016)의 속편, <반도>가 7월 15일 개봉했다. 현재 추이로 봤을 때 국내 극장수입으로만 손익분기점 돌파는 어려워 보이고, 해외 개봉 판권이나 2차 시장(VOD 등) 판매 등을 통해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수준의 수익을 거둘 듯하다.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개봉 이후 속속 발표되는 영화평론가 및 관객들의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서사의 창의성과 개연성 부재가 여전하게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편인 <부산행>보다 크게 떨어지는 속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반도>의 서사 및 영상 전반은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및 디스토피아 영화의 각종 클리셰들을 한껏 버무려 모방한 티가 난다.

미국 좀비물의 대명사인 TV 시리즈 <워킹 데드>(Walking Dead)를 비롯, 영화 <레지던트 이블>(Resident Evil) 시리즈에 나온 각종 좀비 영화의 내러티브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좀비와는 상관없는 디스토피아 영화들, 대표적으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카체이싱 장면들이 카피되어 있다.

한 마디로 <반도>라는 영화는 작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 기존의 좀비 영화 장르에 새롭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한국 산업 특유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따르는 영화라 말할 수 있다. 창의성, 실험성만을 따지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한국형 좀비물 <킹덤>이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문화비평 관점으로 보자면, <부산행>부터 <킹덤>을 거쳐 <반도>에 이르기까지, 각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및 드라마가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좀비라는 문화요소는 한국의 정신 문화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문화가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좀비 문화가 현재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 발취하고 있

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형태의 좀비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일본의 게임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된 공로라 볼 수 있다.

1996년부터 일본 게임제작사 캡콤이 개발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이 시리즈를 영화화한 영미 합작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그리고 21세기 좀비 영화의 서사적 공식(바이러스 실험으로 인한 인간의 좀비화, 달리는 좀비, 정부 붕괴, 원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희생)를 완성한 영국 영화 '28일 후'(2002)의 성공 이후, 미국 미디어 업계는 좀비 영화 및 TV 시리즈 제작에 상당한 공을 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영화 <새벽의 저주>(2004)와 TV 시리즈 <워킹 데드>(2010-현재)의 대대적인 흥행으로 이어진다.

게임 업계 역시 끊임없이 좀비 관련 작품들을 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2013년 역대 최고의 좀비 게임으로 평가되며 흥행에 대성공한 게임 개발사 너티독의 콘솔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1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흥행한 좀비 관련 미디어 콘텐츠들은 넷플릭스 등의 배급망을 힘입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일본과 한국에서도 미국의 언데드(the undead, 좀비, 구울 등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지칭하는 명칭) 영화나 TV 시리즈를 모방한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대표 좀비물로는 영화 <아이 엠 어 히어로>(2016)를, 한국의 대표 좀비물로는 위에 언급한 <부산행>과 <킹덤>을 지목할 수 있다.

◆**좀비와 종교: 저주받은 영혼의 대중화된 이미지**

문화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인 분석과 고찰에서 크게 앞선 미국 학계에서는 일찍이 이 좀비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 현상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는 기독교 신학계 및 철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내세 신앙을 주된 모티프로 차용한 좀비 콘텐츠는 신학적으로든 종교철학적으로든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 관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한국의 대표 좀비 영화 <부산행>(2016)과 후속편 <반도>(2020).

인간이해를 위한 귀중한 원(原)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위버 주립대학교(Weber State University) 철학교수이자 대중문화의 철학적 분석 방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리처드 그린(Richard V. Greene)은 '불사(不死)의 악독함(The Badness of Undeath)'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왜 좀비 콘텐츠들이 죽지 않음, 즉 불사의 상태를 대단히 불쾌하고 악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린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불사 상태가 나쁘다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일단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 의식의 종결이고, 한 사람으로부터 삶의 가능성 전부를 박탈하며 욕망 충족을 좌절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죽음보다는 삶이 더 좋은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불사는 오히려 죽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물론 불사의 상태는, 그것이 좀비나 뱀파이어가 누리는 괴기스럽고 비위상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가능성 실현과 욕망 충족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가능성과 욕망의 성격이 원래 인간 상태였을 때와 달리 크게 변한다는 점이다.

좀비나 뱀파이어의 가능성과 욕

망은 지극히 동물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서, 도저히 그 육체가 갖고 있던 원래의 인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을 때보다 지극히 비참해진 상태, 존재의 격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좀비나 뱀파이어가 누리는 불사의 현실이다.

그런 불사는 인간의 품격을 가진 채 죽는 것보다도 훨씬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죽음이 나은 것이다. 이것이 그린의 밝히는 불사가 죽음보다 좋지 않게 생각되는 이유이다.

그린의 설명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좀비 미디어 콘텐츠들이 저주받은 죽음, 영벌의 이미지를 구체화한다는 점이다.

원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벌의 이미지는 지옥불 속에서 받는 극한 고통이다. 표현 방식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좀비 콘텐츠들은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 그 인격이 끝없이 추락한 상태의 악독함과 고통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는 영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뱀파이어 콘텐츠에서는 주기적인 흡혈 욕구가 주는 위험과 괴로움,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을 서서히 상실해가는 데서 오는 고뇌 등으로 표현되고, 좀비 콘텐츠에서는 끝없는 배고픔,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 지능 상실과 동물적 본능에만 지배되는 고통 등으로 표현된다.

근현대 뱀파이어 문화, 좀비 문화는 애초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서구에서 크게 발흥했고(좀비 문화는 아이티에 끌려온 서아프리카 흑인들의 부두교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곧 서구의 공포, 괴기 대중문화에 흡수되었다), 그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무한한 고통의 상태, 즉 기독교적인 영벌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소재로 자주 사용되곤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중문화 전반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좀비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친화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아직 사회 전반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 서구에서는 좀비 문화가 지옥과 영벌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가치를 가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신론과 실존철학,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좀비 문화, 언데드 문화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별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영생이든 영벌이든 상관없이 은연중에 내세와 부활 신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점 때문에 문제시된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어깨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핏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팔꿈치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발간고,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유선산 캡슐 위급

초스피드 **1달**
다이어트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넘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5:12-16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4 이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중략)...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총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총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종교 심리를 바탕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도 확실히 믿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미신적 기대 심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80-9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

에베소서 3장 1-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과분한 긍휼과 은혜로 택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구속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 소망의 영원한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의 복음을 성령에 이끌리며 땅 끝까지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알뜰하신 보살핌과 체험들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세상의 기대와 꿈을 좇아 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봉사와 순종과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의 보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더 들어보낼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21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도 참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멸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모든 모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서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며, 결국 복음을 통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7절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이 “카토이케오”는 잠시만 함께하고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보존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 영적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어 성령 받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성령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도가 변화되면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구령성고를 위해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 너야말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써야겠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어디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가서 성과를 올리도록 내가 도와 줄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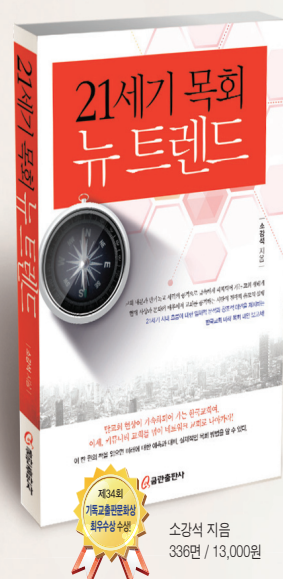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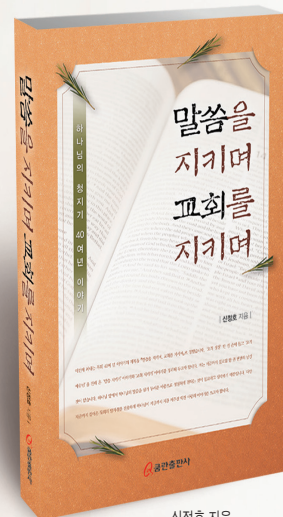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영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협의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기 위한 차세대 대표목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아민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행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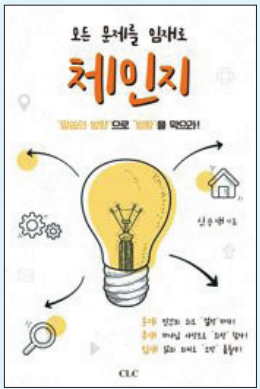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도부 회장, 총회 군 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연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학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문제, 존재, 임재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때, '문제' 라는 포장지 사용하신다



모든 문제를 임재로 체인지
신승재
CLC | 192쪽

문제, 인간의 죄로 '절망' 하다!
존재, 하나님 사랑으로 '희망' 찾다!
임재, 삶의 의미로 '소망' 붙들다!

'나의 인생'을 바꾼 '제 단어'다.

'문제'(問題), '존재'(存在), '임재'(臨在)다.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제 투성'이었다. 삶이 상처로만 채워졌다. 그러나 고난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마주치기 시작하였다. '문제'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임재'가 내 '존재'를 바꾸었다. '임재'가 인생을 '체인지'시켰다.

박웅현은 《여덟 단어》에서 '문턱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턱 증후군이란 그 문턱만 들어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증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어느 대학의 문턱만 넘으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만 하면, 어느 직업만 갖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문제 없이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 문턱만 넘어서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까?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이 펼쳐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문턱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들이 앞에 펼쳐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의 인생에는 평균 3-4개월에 한 번씩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곧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와 위기는 나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엘버트 하바드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문제가 찾아온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신승재목사의 《모든 문제를 임재로 체인지》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준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세 단어가 "문제(問題), 존재(存在), 임재(臨在)"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제 투성'이었다. 삶이 상처로만 채워졌다. 그러나 고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점점 하나님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문제'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임재'가 내 '존재'를 바꾸었다. '임재'가 인생을 '체인지'시켰다. 말씀으로 인생의 '존재'를 깨달으니, 삶을 뒤흔들 비전이 생겼다"

저자는 문제 투성이인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내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짧게 쓰인 글들 속에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

1. '아픔' 이 '길' 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이 '길'을 만

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픔'이 '길'을 만든다. '수많은 아픔'들이 '내 삶'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 아픔이 나를 성장케 했다. 절망의 시간이 나를 큰 사람으로 빚어냈다.

행복할 때는 성장이 거의 없다. 아니 성장의 필요성조차 못 느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아픔'이다. 아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인생을 키워냈다. '아픔'이 '길'을 만든다. 아픔이 만든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아픔이 아픔 자체로 끝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아픔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픔 가운데 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성장하게 된다.

2. '노출' 이 능력이다
'노출'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노출할 수 있다면,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삶이 노출되면, 더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 '긴장감'이 '성숙함'에 이르게 한다.

삶을 감추기만 하면, 삶이 희미해지게 된다. '복음'은 '나를 노출하는 것'이다. 죄로 노출되면, 인간이 죄인임을 뼈가 저리도록 느낀다. 죄를 느끼기에 죄를 이길 수 있다. 결국 '노출'이 '능력'임을 배운다. 노출한다는 것은 발가벗는 것을 의미한다. 남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용기 자체가 이미 능력이다.

3. 다윗의 전성기는 골리앗인가? 밧세바인가?
다윗의 전성기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아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이다. 다윗은 이 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다. 하나님의 큰 사랑까지도 누렸다.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우리까지 죽게 한다. 이것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 앞드려야 한다. 우리는 본래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성기를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한다. 최고의 전성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라고 말씀한다.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말씀한다.

4. 어둠이 축복이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들면, 처음에는 어둠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둠 속에서 하

나님의 빛이 보인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둠이라면 기뻐해야 한다. 생명의 빛을 발견할 찬스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은 한자위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다. 검은자위, 곧 눈동자로 본다. 탈무드는 이 인생의 신비, 검은 눈동자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준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5. 공격&공감&공락
'공격'하지 말고 '공감'하라! '공격'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 뜨거운 관계만 된다.

'공격'이 아니라 '공감'하라. 공감이 마음을 얻는 지혜다. 마음을 얻어야 인생을 얻는다. '공감'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최적의 '공략'이다.

이지성은 《에이트》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

6. 존재를 넘어 임재로 살아가
'존재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다. 삶의 방향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겸손'이다. 나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축복'이다. 임재가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삶의 존재'로 충족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존재

의식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7. 외로움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외로움은 기회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를 돌아보는 회복의 시간이다. 외로움은 본질을 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외로움'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외로움'으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포장지 집중하라, 선물 놓쳐서야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 찾아내야 문제 속에 있는 선물 바라볼 통찰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문제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지에만 집중하느라, 선물은 찾지 못한다.

곧 문제에 집중하느라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찾지 못한다. 결국 소수의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포장지를 뜯고, 그 속의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다.

우리는 문제라는 포장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 실망하면 안 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 있는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체인지함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라.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